東大新聞

發行 編輯 兼印刷人 鄭斗石
主幹 元大展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社 東大新聞社
電話② 1685 1686 6901

(週刊)
一部定價 五원 月定購讀料 貳拾원

今週 一言

放逸하지 않으면 稱讚을 받고, 放逸하면 그것은 비난을 받는다.
—(法句經)—

經商大學을 새로 增設

統計·警察行政 두 科新設

數·物理兩科復活, 政治科는 政外科로

新入生募集에 萬全

本校는 이번 法政大學으로부터 經商系學科를 分離하여 「經商大學」을 새로 設立하는 한편 우리나라 최초로 法政大學과 文理科大學에 各各 「경찰行政學科」와 「統計學科」를 增設하여 종전의 佛·文·法·農四個單科大學을 五個單科大學으로 늘이는 同時 이에 따르는 諸般施設을 完備하여 國家的으로 要請되는 大學敎育의 質的向上을 期하고 各分野의 有能한 人材를 養成하기에 萬全을 기하게되었다.

經商大學設立은 在學生 및 同門들의 待望裡에 오래전부터 추진되어오던 것으로 결국지난해 十二월二十九일文敎部의 認可를얻어 實現된것인데 經商大學所屬學科는 經濟學科 商學科 經營學科이다.

法政大學의 警察行政學科와 文理科大學의 統計學科는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생긴것으로 今年부터 新入生을 募集하게되는데 이는 各各 內務部와 經濟企劃院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 經商大學과 同日字에 增設認可를 얻은것이다. 警察行政學科는 앞으로 警察行政界의 重要人材를 육성하게될것으로 저가는 社會發展으로말미암아 더해갈에 따른國家的 要請에 依한것이다.

이學科는 「警察行政學」—「保安學」—「搜査學」—「鑑識學」—「警察學」—「行政學」—「法學」—「經濟學」—「商學」—「經營學」—「統計學」—「數學」—「物理學」—「化學」—「生物學」—「農學」—「林學」—「經濟學」—「食品加工學」—「應用生物學」—「農藝學」—「畜産學」—「獸醫學」—「水産學」—「海洋學」—「造船學」—「機械學」—「電子學」—「土木學」—「建築學」—「都市計劃學」—「工業化學」—「工業經營學」—「工業管理學」—「工業經濟學」—「工業敎育學」—「工業分析學」—「工業藝術學」—「工業美術學」—「工業圖案學」—「工業機械學」—「工業電子學」—「工業土木學」—「工業建築學」—「工業

一九六三年은

崔元植

아무래도 우리는
지난 일들을 理解하고 살아야겠다.

경쾌하고 숨찬 感動의 로타리에서,
無智와 欺瞞의 잠에서 깨어나
움직이는 뜻뜻한 香氣에 이르기까지,
一九六三年은
열사람의 容恕보다,
수다스런 교섭보다,
아무래도 우리는
지난 일들을 理解하고 살아야겠다.

所望의 牧者여.
마음이 속으로 구비구비 하나로
굽어보듯 즐거이 誤謬와 번뇌로 부터
사랑하는 모두에 이르기까지
一九六三은
萬人의 陰謀보다,
신비한 선전보다,
아무래도 우리는
지난 일들을 理解하고 살아야겠다.

오는가,
너는 태연하고 우리는 눈부신것,
떨리는 散步路에서
健康과 生活들을 이야기 하며
無關했던 自己로 부터
빵과 책갈피에 서린 友情에 이르기까지,
렘프를 켜라.
一九六三年은
樹木으로 싱싱하게,
즐거운 發見들을,
무성한 모든 나를, 입맞추고 아껴라.

癸卯新年頌

玉토끼가 廣寒殿을 뛰쳐나와서
달님타다 人間계에 내려를왔다.
호랑이는 자취감춰 행패가셨고
하나님의 命받은龍 공을베풀터
樂律로는 夾鍾되어 天地고루고
萬禮로는 明視로서 郊廟에전해.
봄가을로 짱은약을 지녔을게니
병든누리 다스려서 태평이루리.

癸卯新年頌
宛扶君出廣寒宮高
取桂輪下碧空虛乙
藏蹤除苛政龍將受
命施神功夾鍾準泰
天人際明時禮傳郊
廟中自有春秋影搖
蕩何難醫世返淳風
辛亥九月 公孫愚 謹撰 權相奭

註
宛扶君…토끼의 別名。
廣寒宮… 月宮。桂輪…달의 異稱。
虎…작년이 壬寅이라 이름。
苛政…論語에 苛政이 호랑이보다 무섭다 해서 이름。
龍…今年에 總運이 있고 後年이 甲辰이라 이름。
神功…周易에「雲行雨施」에서 다잡은 말。
夾鍾…十二律 中의 하나로「位於卯在二月」이니 今年이 癸卯年이라서 이름。
天人…하늘과 땅。
明視…토끼의 別名。郊와廟의祭祀에 토끼를 씀에서다。
郊廟…郊는 제사지내는 터、廟는 宗廟。
淳風…太古적太平盛代。

土亭秘訣

梁柱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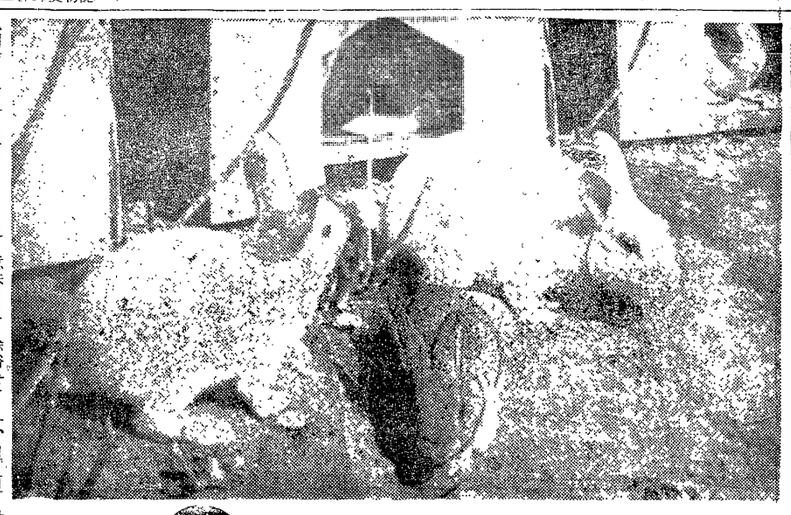
土亭 李光한은 宣祖때 儒者요 名士로 東江【李浚慶】·栗谷【李珥】등과의交友가 있어 經學 외에 여러가지 奇才 이었다。 이를테면 遁甲을 낭긴 것은 사실이다。 마치면 沼澤地에 種蓮을 하여 놓을 것이다。 이를테면 길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워 무수한 行人들로 하여금 土石을 던지게 하여 주었다는 이야기、또는 큰박 네개를 허리에 차고 州道를 몇번 헤엄쳐 往來했다는 이야기 등등—그러나 그것들도 대개 好事者들의 誇張섞인造話에 栗谷도 그는 一종의 奇士로 보았으나、그는 무슨 術客·方士가 아니요 다만 儒者일 뿐이다。 그러니 그가 줄기던 諧謔과 재한 그러니 그가 不徑·荒唐 한 占書「秘訣」을 지었을리가 없고、後世의 누가 그의 이름을 假託하여지은것인데 불과하다。

「秘訣」이라야 그 土亭이 아니요 소위「四柱」에 의하여 吉·兇 牛석음의 알쏭달쏭한 풀이로 四言句를 羅列한 것인데、그것이 다른 모든 四柱占 기타 占術과함께 전혀 無稽한 迷信임은 말할것도 없다。 祖때 儒者요 名士로 東江【李浚慶】·栗谷【李珥】등과의交友가 있어 經學 외에 여러가지 奇才 이었다。 이를테면 遁甲을 낭긴 것은 사실이다。 마치면 沼澤地에 種蓮을 하여 놓을 것이다。 이를테면 길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워 무수한 行人들로 하여금 土石을 던지게 하여 주었다는 이야기、또는 큰박 네개를 허리에 차고 州道를 몇번 헤엄쳐 往來했다는 이야기 등등—그러나 그것들도 대개 好事者들의 誇張섞인造話에 栗谷도 그는 一종의 奇士로 보았으나、그는 무슨 術客·方士가 아니요 다만 儒者일 뿐이다。 그러니 그가 줄기던 諧謔과 재한 그러니 그가 不徑·荒唐 한 占書「秘訣」을 지었을리가 없고、後世의 누가 그의 이름을 假託하여지은것인데 불과하다。

「秘訣」이라야 그 土亭이 아니요 소위「四柱」에 의하여 吉·兇 牛석음의 알쏭달쏭한 풀이로 四言句를 羅列한 것인데、그것이 다른 모든 四柱占 기타 占術과함께 전혀 無稽한 迷信임은 말할것도 없다。 이날에는 統計的 지식이 없고 見解가졸아 生年月日時가 똑같은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 독하여 소위「四柱」로써 개인의 특의 運命을 말했으나、지금생각하면 同一時(두시간)에 出生한 사람이 全세계에 몇萬명 된 한국內에서만도 數百人이 되는데 이들이 同一한운명일것인가? 이런 간단한사실에도 불구하고 四柱八字를云謂하니 딱한일이 아닌가。

迷信과 邪說에는 반드시 遁辭을 붙게 마련이다。 이명백한사실에대하여도 뜨려 가지雜說이있다。 登極후 四柱占장이 대포적인說 四柱가 독특한 食卓 忌避 소금 五月 호존재한도의 13號 迷信 食室 吉日 호고 그사람에 하서 彼한이 있는 「迷信」이 있느냐? 「이 異議 할 痛 嘆 歐하이·펀도 무答 迷信이냐? 「美애우있도리 이 흑 등 拾)에생밀 황는 밤에 던지는 하여 그 무슨 마 어깨 이 깨 이 면 재 이 나 그 이 도 이 러 있지 않 면 기타 그 이 러 있 는 이 러 있 는 이 러 있 는

放 우리는 또 끼띠 家族 談



參席者

徐廷柱 (48・文理大敎授)
鄭 종 (48・佛敎大敎授)
金一淑 (24・圖書館職員)
鄭仁子 (24・農學科四年)
高順福 (24・佛敎科三年)
金文煥 (24・政治科三年)
☆司會・宋在甲 (本社編輯局長)
☆速記・尹靑光 (本社編輯部長)

▲司會＝바쁘실텐데 나와주셔서감사합니다。새해는 토끼띠、癸卯年입니다。뭐랄가요 우리 東洋에는 해(年)에마다 소해다、말해다、토끼해다、하는게 있잖습니까? 이런것이라두 있는게어떤 意味에선 徐裕卓다고 할가요? 혹은 神秘感같은 것을 느낄 수 조차 있다고 할가요? 이렇게 모셨는데 한끼띠만 모셨는데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徐廷＝그럼 토끼들 음식으로 생각하고 들지 허허허

▲高順＝도토리로나생가하고 먹으면 맛이더 있겠군요 (웃음)

▲鄭仁＝참 꼭 도토리처럼 생긴 과자까지 있군요 호호호

▲司會＝어떻습니까? 이런 우화적인 것이神秘的인 것으로 꿀고들어가는데 큰 구실을하고 있는것은 아닐까요?

▲徐廷＝따지잘것도없이 무슨더다 하는건재미있는 일이지…

▲司會＝그럼、모두들 토끼띠로서 토끼해를맞는 所感을 한마디씩…

▲鄭종＝글세、새해는 「나의해」라니까 우선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어요。

▲徐廷＝아아니 그만 그리고 자꾸 남의것만 주책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유의뿌리를 잃는다는 비극을 세해부터라도 깨뜨려고 分別해서 西歐것을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입니다。

▲司會＝뼈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정말 이대로 낡은것만 받아 들어다간 어떻게 될지 겁이나니까요。그리고 徐선생님께서는…

▲徐廷＝나는 토끼띠는 토끼면 性質은 거기에 가깝거든。도대체 느리고 게을러서 말썽이야。마지막 競走에는 이길지 모르나 性質이 판판이거든。또 꼭메꾸어야 겠읍니다。

▲金一＝저두토끼해라니까 어쩌지 좋아요。

▲金一＝글세요。女子 큰 일을하고 싶은데…

▲司會＝하시겠다는거 결국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는것이예요。

▲徐廷＝그렇지요 그러니까 글쎄…

▲金一＝큰일이니까…(一同웃음) 허지만、공부로서의 未定이예요。

▲徐廷＝허허아무튼 결혼한까는 아직 未定이예요。

▲鄭종＝암 그래야하구 말구요。

▲金文＝허허 그래야 하시요。

▲徐선생님도에 龍宮에가듯 주기하셨는데요… 토끼가 갔다가 교묘한 생각합니다。제 메로 滑化치도 않고傳達하시는데는 딱 질색이거든요。우리의 風土에 맞도록 創造하여 달 世代의인 突定感만 련해 준다면 충분히 취사선택하고 소화시켜 받아들일 수가 있을 데요。

▲司會＝좋은 말씀입니다。事實上 지금의 젊은 世代에게 안정感을 주고 있진 못하니까요

▲金一＝그것도 重要하겠지만 무엇보다도 主體의 姿勢가 問題라고 봐요… 社會的인 不安定性이라든가 하는것도 받아들이는 自體에 달려 있지않겠어요? 우선 젊은 世代에겐 적이지 않을 것이 아닐까요?

▲鄭仁＝모두의 공통 성이군요。저두 그런데 보니네 鄭飛＝그러구 보니네 植物性 그래요。

▲高順＝하하 저두그래요。

▲鄭仁＝토끼는 참 깝하하。

▲鄭仁＝토끼는 싸잖아요? 저두그 점을 빌려야겠어요。

▲金文＝참 민접하게 活動을 벌려야겠어요。

▲鄭종＝글쎄、卒業班에 있는 우리 학생들 뛰어야겠군요。

▲金文＝참 꼭 도토리처럼 생긴 과자까지 있군요 호호호

▲司會＝어떻습니까? 이런 우화적인 것이神秘的인 것으로 꿀고들어가는데 큰 구실을하고 있는것은 아닐까요?

▲徐廷＝따지잘것도없이 무슨더다 하는건재미있는 일이지…

▲司會＝그럼、모두들 토끼띠로서 토끼해를맞는 所感을 한마디씩…

▲鄭종＝글세、새해는 「나의해」라니까 우선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어요。

▲徐廷＝아아니 그만 그리고 자꾸 남의것만 주책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유의뿌리를 잃는다는 비극을 세해부터라도 깨뜨려고 分別해서 西歐것을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입니다。

▲司會＝뼈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정말 이대로 낡은것만 받아 들어다간 어떻게 될지 겁이나니까요。그리고 徐선생님께서는…

▲徐廷＝나는 토끼띠는 토끼면 性質은 거기에 가깝거든。도대체 느리고 게을러서 말썽이야。마지막 競走에는 이길지 모르나 性質이 판판이거든。또 꼭메꾸어야 겠읍니다。

▲金一＝저두토끼해라니까 어쩌지 좋아요。

▲金一＝글세요。女子 큰 일을하고 싶은데…

▲司會＝그럼 그렇게 되어야 하는것이예요。

▲鄭종＝암 그래야하구 말구요。

▲金文＝허허 그래야 하시요。

▲徐선생님도에 龍宮에가듯 주기하셨는데요… 토끼가 갔다가 교묘한 생각합니다。제 메로 滑化치도 않고傳達하시는데는 딱 질색이거든요。우리의 風土에 맞도록 創造하여 달 世代의인 突定感만 련해 준다면 충분히 취사선택하고 소화시켜 받아들일 수가 있을 데요。

▲司會＝좋은 말씀입니다。事實上 지금의 젊은 世代에게 안정感을 주고 있진 못하니까요

▲金一＝그것도 重要하겠지만 무엇보다도 主體의 姿勢가 問題라고 봐요… 社會的인 不安定性이라든가 하는것도 받아들이는 自體에 달려 있지않겠어요? 우선 젊은 世代에겐 적이지 않을 것이 아닐까요?

▲鄭仁＝모두의 공통 성이군요。저두 그런데 보니네 鄭飛＝그러구 보니네 植物性 그래요。

▲高順＝하하 저두그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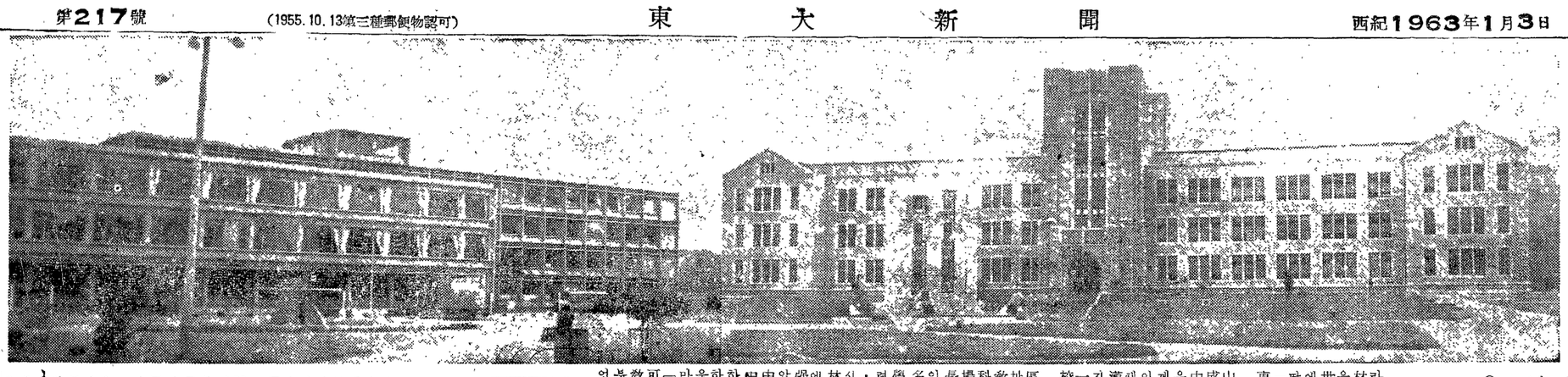
▲鄭仁＝토끼는 참 깝하하。

▲鄭仁＝토끼는 싸잖아요? 저두그 점을 빌려야겠어요。

▲金文＝참 민접하게 活動을 벌려야겠어요。

▲鄭종＝글세

1963年 大學案內版



沿革

○… 오늘 東大
○…는 四千健兒
○…의 숨가쁜꿈
○…과 浪漫의소
○…용도리속에서
○…산다。四·一
○…九革命을 決
○…定的段階로이
○…뜯고 聲武台
○…앞으로 내닫
○…던 그氣慨와
○…그果敢한 폐
○…넋스精神속에
○…산다。獅子는
○…용렬하지 않
○…고 蠻勇과는
○…外面을한다半
○…世紀에걸쳐늠
○…늠한 大河처
○…럼 흘러온傳統。
○…動도 하지않을
○…다。三萬餘坪의
○…울을한눈아래굽어보며
○…저世界를 向한
○…에있다。傳統은
○…처럼無限한 可能性을
○…가며 돌려지켜온 여기·넘치는
○…더전을 디딤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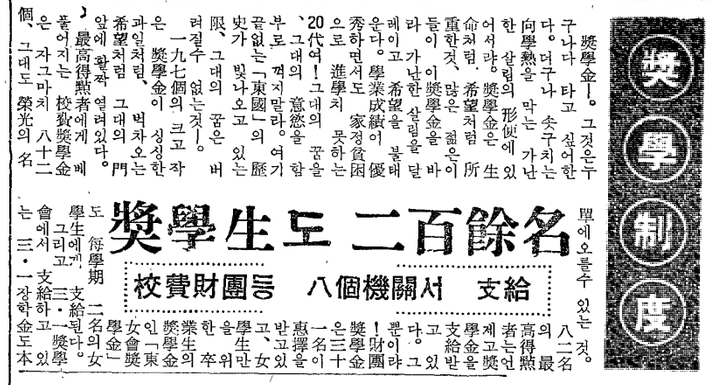
장토는 황폐하고、나라를 짊어지고나선 人材貧困은 祖國의 來日을어둡게만 하던 半世紀前! 東洋的沈滯속에서 昏迷하고있던 이 땅에 불을밝히고 「中央學林」은 나선 「東大」創業期가 된다。

韓國佛敎의 三十一本山에서 宗團의 人材養成을 目的으로 門을연 中央學林이 경어온 「多難」한 祖國과 함께 이었다。封建的인殘滓를 그것 헤치고나선 姜大運、朴漢永스님의 굶은 혓되 지않아、一九一五年 開校。

學生들의 활발한 自治活動이 벌어졌는데 校誌『一光』誌에 發表되었던 敎授 學生의 硏究論文과 文藝作品은 그 一斷面이라 할 수 있겠다。

帝의 갖은 彈壓에도 不拘하고 날로 發展

沿革



<사진·本校石造館과圖書館>

傳統은 늠늠한 大河처럼

佛敎精神위에 氣慨도 벅차

紀世半 들며 나며 돌려지켜온

校는 敎育體制를 當時부터 反日學校로 指目해 온 本校에 日人校長을 强制로 내보내어、저들의 合當한 運營을 企圖하는 「國民總力·學生會」를 「聯盟」으로 改編되고 「惠化專門學校」은 「惠專」으로 改稱。學校 興亞細亞 育成을 目的으로 「東洋文化硏究所」를 設置、「東亞文化硏究所」를 設置하여 「東洋學」을 硏究하고 「東洋學叢書」를 發刊하는 等 東洋文化硏究에 힘쓰고 있다。

一九四五年八月一五日 日帝는 敗亡하고、光復과 함께 日帝의 壓迫에서 벗어나 自由와 獨立을 되찾았다。

一九四四年五月三十日 發惡的인 日帝는 國民總動員令을 發令하고 美軍의 空襲에 대비하여 學生들을 動員하고 百餘名의 學生을 動員하여 學兵으로 징용하였다。

一九四五年八月一五日 日帝는 敗亡하고、光復과 함께 正義의 勢力이 되어 숨가쁜 學園은 安定을 되찾았다。

文理科大學

佛敎大學

法政大學

經商大學

農林大學

醫大

博士도 15名이나

權威있는 一二百餘敎授陣

內外의 注目끄는 專攻學科도

徹底한 指導、活潑한 自治活動

研究機關도 많아

農場、演習林 設置、印刷所도 있고

圖書館엔 가득찬 研究生

研究機關 및 團體 二百餘名 學生 獎學金

支給 서 八個機關 및 團體 財費 校

獎學制度

學誌

고으모 題話지까서界學海外

研究의 結晶學會誌

속계行發찬기 줄 다마會學

完全한設備의最新式科學館

無料奉仕하는保健所도자랑

館學科 및 保健所와

社會進出現況

各界各層주름잡는本校出身

同窓社會進出現況表

職業別	人員
大學敎授	九十五名
中高敎師	一八五七名
公務員	二七四三名
言論人	一五七名
實業人	二五一四名
文筆人	一二七名

權相老(名譽 文學博士)、黃義敦(名譽 文學博士)、金法麟(名譽 文學博士)、崔載瑞(文學博士)、

「時事英語研究」姉妹誌
英語生活
英語會話

(附)(錄) KBS TV 英語會話 教材
新正號 값30원
時事英語 社發行
良友堂 總販

〈主要內容〉
映畫「피노키오」英韓對譯
世界 高校生 討論大會
한 黑人 學生의 人權鬪爭記
美·蘇 科學情報戰
사랑의 對話 사랑의 분위기
韓美俗談 比較論
其他 學習 敎養 娛樂記事 滿載

≪近刊≫
KBS-TV 영어교실
「時事英語硏究」編輯部 編
菊版·模造洋裝

HLKY 基督敎放送
英語講座 敎材